

세계기도정보

[벨라루스] 비밀경찰의 종교자유 침해 정리한 인권단체,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
 [콩고민주공화국] 폭력 사태 속에서 평화와 회복을 위한 기도 모임 조직돼
 [볼리비아] 아동결혼법안이 미성년자 학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
 [케냐] 전국 아동 보호소 단계적 폐지...가족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로 전환 계획
 [이란] 아르메니아계 기독교인, 이란의 부당 수감에 강력 항의
 [영국] 영적 각성 일어나...복음에 마음 여는 사람들 증가
 [말리] 군정, 민주화 요구 시위에 정당활동 금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의 절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
 [유럽] SNS·AI 흐름을 타고...유럽서 '청소년 테러범'이 늘고 있다
 [세계] 서구 3개국서 확산되는 생명윤리 논쟁
 [독일] 무종교자가 가톨릭·개신교 신자 수 앞질러
 [인도] 호주 선교사 살해범 석방되자 '영웅' 대접에 논란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2025. 5
멕시코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바다를 넘어..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하나님 나에게 힘과 지혜를(페루).

5월 19일 월요일, 페루 장로회 총회장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다. 땀보지역 인디언들과 함께 나를 환영하는 사진과 함께 모두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나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존중을 현지인들로부터 나는 받는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이번 방문을 두고 긴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이들은 모를 것이다.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페루 사역이 시작된다. 이번 방문 기간중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페루 장로교 교단 총회로 페루 전역에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리마에 모인다. 그리고 이들은 주 강사로 나를 초청했다. 나는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이들과, 반대로 그것을 부정하는 이들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의 지력을 소유한 이들로부터 고2의 지력을 소유한 이들까지, 너무나 넓은 인식의 격차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께서 내 입에 그의 말씀을 심어 주시길 간구한다.

아나 여목사의 기쁨(쿠바).

최근 사역처 집이 무너져 머물 공간을 구하던 아나 여목사로부터 사진과 함께 감사의 문자가 도착했다. 비록 나무로 된 집이지만 새로운 집을 구입했다며 행복해한다. 내가 그녀에게 280불의 헌금을 보냈다. 280불짜리 집이라... 그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나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자신을 위해 귀한 헌금을 해 주신 분들을 꼭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한다. 날로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쿠바를 보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울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루빨리 아나 여목사도 감상선 수술을 받을 수 있길 함께 기도한다.

사연으로 지어진 사택

코스타리카 하비 목사님의 사택 건축 중, 나는 까를로스 목사님께 잠시 멈추고 기다리자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자재들을 사택 공사장으로 날랐다. 하비 목사를 보며 까를로스 목사의 마음이 많이 아팠다. 까를로스 목사의 헌신과 함께 하비 목사님의 사택을 위한 사연 많은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모든 헌금에는 각자의 사연이 담겨있다. 누군가는 수술후 보험금을 타서 또 다른 누군가는 소천하신 부모님의 유산으로... 그 사연들이 모여, 하비 목사님의 사택이 내 예상과 달리 다음 달에는 완공될 것 같다.

명품교회

4월 23일 수요일, 까를로스는 하비 목사님의 교회도 이쁘게 지어주고 싶었나 보다. 설계사인 자신의 큰아들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능을 기부해 하비 목사의 예배당 도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철물점을 하는 막내에게는

재료들을, 큰아들에게는 도면을... 그렇게 이쁜 예배당 도면이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비라인 지역 구청으로부터 1년짜리 공사 허락을 받았다.

나는 이 공사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다: “하나님, 이 일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 증표를 구했다. 첫째는 과달라행복한교회 건축을 위해 모아둔 재정을 일부 사용하기 위해, 과달라행복한 교회의 호세 목사에게 하비 목사님의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준비한 재정을 사용하자고 했을 때 그가 기쁘게 이 일에 응해 주는 것이었다. 한국으로 출국 전날 호세 목사를 만나 같이 점심을 먹으며 나는 그에게 말했다: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수 없다면, 지정 헌금을 제외하고, 하비 목사님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 우리가 모아둔 재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어떨겠습니까?” 하비를 잘 아는 그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정 헌금도 하비 목사님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한국에 와서 두 번째 증표를 구하기 위해 한 목사님을 만났다. 25년 넘게 사역을 하며 난 누구에게 얼마의 헌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증표로 나는 그에게 말했다: “목사님, 예배당 건축을 위해 3천만 원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주시면, 이 예배당을 건축하라는 뜻으로 알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가 나를 보며 말한다: “목사님, 급하셨나 보군요. 제가 당장 답을 드릴 수 없지만, 90% 확답을 드립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 부지를 기부 받을 때 그 옆의 땅을 함께 구입하라며 헌금을 하신 권사님을 찾아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드렸다.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선교사님, 그렇지 않아도 3월 기도편지를 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올 6월에 은퇴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제까지 수고했다며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다고 저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 명품 가방 대신 그 돈을 하비 목사님 예배당 건축을 위해 헌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이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 땀 한 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여 비라인 행복한 교회는 명품교회가 되려나 보다.

5월 기도제목:

1.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페루 사역을 중 온전히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2. 특히 6월 23~26일까지 진행되는 페루 장로교 총회에서 강의를 통해 참여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3. 하비 목사님의 예배당 건축을 위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4.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멕시코 베라크루스- 치아파스- 메리다로 이어지는 긴 방문을 통해 내년 어린이 전도 집회와 성인 전도 집회에 함께 할 준비된 교회들과 리더들을 만날 수 있도록.